

박완서의 소설 「미망(未忘)」에 나타난 인삼의 상징성

The Symbolism of Ginseng in *Mimang* by Park Wan-Seo

옥순종*

Soon Jong Ock*

초 록

주제어

- 박완서
- 미망
- 인삼
- 삼업정신
- 개성상인
- 민족정신
- 근대 자본주의화

박완서의 소설은 여성문제, 자본주의 체제, 노년 문제 등을 현실감 있게 다룸으로써 문학계는 물론 여성학, 사회학 등 많은 분야에서 사회 현상의 분석 도구로 활용된다. 박완서 소설의 특징은 본인이 체험했던 사실들을 소설의 배경으로 배치한다. 하지만 소설 「미망」은 예외적으로 그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취재를 바탕으로 줄거리를 구성했다. 이는 잊지 못하는(未忘) 고향 개성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정신을 보여 주려 한 것이다.

「미망」은 인삼재배와 상업을 기반으로 거대 자본가로 성장한 전처만과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4대에 걸친 가족 연대기가 줄거리를 이룬다. 19세기 후반부터 한국전쟁이 끝나는 시기까지를 배경으로 소설은 역사적 격동기에 살아왔던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인삼과 개성상인이 상징하는 시대적 의미를 풀어낸다.

개성은 고려인삼의 메카로서 인삼과 개성상인 이야기를 빼고는 개성의 전형을 그릴 수 없다. 실재했던 사실들을 토대로 픽션이 가미된 「미망」은 근대사의 사료적 가치, 개성의 풍속사 뿐만 아니라 미시사로서 인삼 역사의 소중한 증언이 담겨 있다. 「미망」에는 개성의 시대상과 인삼 상인의 정신, 식민지 시절 일본의 인삼 약탈과 삼업인의 저항, 인삼 자본의 근대 자본주의로 전환 등의 흔적이 화석처럼 박혀있다. 특히 의미가 깊은 것은 소설 속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과 조응해 인삼사의 한 장(章)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미망」에서 나타난 인삼의 상징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고려인삼의 정기를 보여 준다. 인삼 농사의 정성과 까다로움, 삼업(蔘業) 정신과 자부심을 통해 인삼의 영물(靈物)스러움을 드러낸다. 둘째, 일본의 인삼 수탈을 민족수난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겸임교수,
Adjunct Professor, Dept. of Media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E-mail: mille21@paran.com

사로 상징한다. 이를 지키려는 인삼 상인들의 노력과 독립운동 지원을 중요한 테마로 풀어내 민족정신을 나타낸다. 셋째, 지주, 상업 자본에 머물지 않고 생산 자본으로 전환, 근대기업화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개성 인삼 상인의 근대 자본가적 진취성을 보여 준다. 세 개의 상징성은 그 당시 인삼 상인이 추구하던 시대정신을 보여 주는 것으로 우리 민족과 인삼의 관계를 더욱 명징하게 드러낸다.

ABSTRACT

Keywords

- Park Wan-Seo
- Novel *Mimang*
- Korean ginseng
- Ginseng business spirit
- Gaeseong merchant
- Ginseng & National sufferings
- National spirit,
Modern capitalism

Park Wan-seo's novels deal with realistic topics of society, such as women's issues, the capitalist system, and the problems that come with old age. As such, her work is used as a tool to analyze social phenomena in various fields, such as women's studies, sociology, and literature. A characteristic style of Park Wan-seo's novels is that she bases them on her own experiences. However, among her novels, the novel *Mimang* is exceptional. The plot is based on stories that have be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is is to show the spirit of the times through the unforgettable story of her hometown, Gaeseong.

Mimang is the story of a family chronology that spans four generations centered on Chun Cheu-Man and his family, who became powerful capitalists through the cultivation and commerce of ginseng cultivation. Set in the late 19th century until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novel unravels the essence of the times symbolized by merchants of ginseng and Gaeseong, focusing on the actions of people living in a period of historical turbulence. Gaeseong is the mecca of Korean ginseng, and Gaeseong cannot be portrayed without the story of ginseng and its merchants. Therefore, *Mimang*, a fictionalized story based on real facts, contains valuable testimony of the history of ginseng, not only as historical values of modern history and personal customs but also as microhistory.

In the novel, traces of the times of Gaeseong and the spirit of ginseng merchants, as shown in the Japanese sacking of ginseng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resistance of ginseng merchants, and the conversion of ginseng capitalism to modern capitalism, are imprinted like fossils. What is especially meaningful is that the stories in the novel correspond to historical facts and constitute a chapter in the history of ginseng.

The symbolism of ginseng in the novel can be explained in three main ways. First, it shows the essence of Korean ginseng. It reveals the soul of ginseng through the sincerity and rigor of ginseng farming, as well as the spirit and

pride of ginseng. Second, it symbolizes the exploitation of ginseng in Japan as a national issue. The efforts of ginseng merchants to protect this and support the independence movement are presented as important themes to express nationalism. Third, it shows the modern capitalist progressiveness of Gaeseong ginseng merchants, who do not stay in landownership and commercial capital, but convert them to productive capital and contribute to society by modernizing them. The three symbolisms show the spirit of the times of the Gaeseong ginseng merchants, clearly revealing the meaningful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people and ginseng.

I. 들어가며

소설가 박완서는 1970년 여성동아 장편 소설 공모에 「나목」이 당선돼 문단에 등단했다. 40대의 늦은 나이에 등단한 늦깎이 소설가였지만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15편의 장편과 100여 편의 단편 산문집, 동화 등을 남겼다.

박완서의 문학작품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일상과 분단 현실, 여성문제, 자본주의 체제, 노년 문제 등 체험적 사실을 리얼하게 다룸으로써 문학계는 물론 여성학, 사회학 등 많은 분야에서 사회 현상의 분석 도구로 이용되었다. 박완서의 소설 「미망」을 주제로 분석한 논문이나 학술지 기사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개성(開城) 지방의 공간 구조, 집, 복식, 음식문화 등 풍토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만큼 박완서의 소설 「미망」 속에는 개성과 한국 민족의 원형이 녹아 있다는 의미다.

개성에서 태어난 작가는 1938년 8살 때 서울로 나와 서울 토박이나 다름없지만 개성은 그에게 영원한 고향이었다. 작가 박완서는 「내 고향 개성 이야기」에서 “내가 개성을 처음 본 것은 여덟 살 때였다. 우리 마을에서 개성까지 사이에 있는 네 개의 고개 중 마지막 고개인 농바위 고개를 다 오르자 바위 밑에 은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도시가 펼쳐졌다...(중략)...개성은 송악산, 용수산, 자남산, 진봉산 등 풍광이 뛰어난 산에 둘러싸여 있어

이 산들에서 발원한 맑은 물이 이 아름다운 고도(古都)를 골고루 적시고 있었다”고 개성을 생생히 기억한다.¹⁾

박완서의 개성에 대한 기억은 「미망」에서 개성을 바라보는 주인공 전처만으로 이식된다.

“셋골에서 개성 성내까지는 이십 리 길이였다. 마지막 고개인 용수산(龍岫山)에 오르니 개성 시가지가 한눈에 바라보였고 시가지들 사이에 끼고 수려한 송악산이 우뚝 마주 서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대처에 소년은 황홀한 눈길을 보냈다. 소년의 눈에 그 고장은 온통 은백색으로 빛나 보였다. 소년은 발아래 보이는 도시를 두고 엄중하게 맹세했다. 큰 부자가 되리라고. 셋골 땅을 다 살 만큼 돈을 벌기 전엔 절대로 용수산을 넘지 않으리라고.”²⁾

전처만의 개성에 대한 첫 인상 묘사에 박완서의 기억이 고스란히 옮겨져 있다. 이렇듯 그의 소설 「미망」 속에는 잊지 못하는(未忘) 고향 개성의 정신과 개성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녹아있다.

박완서의 소설 대다수는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엄마의 말뚝」은 1930, 1940 년대의 서울을 「나목」, 「목마른 계

¹⁾ 박완서, 「내 고향 개성 이야기」,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1), 227쪽

²⁾ 박완서, 「미망」상권 (세계사, 1996)

절'에선 한국전쟁기의 서울, 「도시의 흥년」, 「닭은 방들」, 「포말의 집」은 1970년대의 서울, 「꽃을 찾아서」, 「울음소리」, 「유실」은 1980년대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³⁾ 「미망」은 유일하게 개성을 주 무대로 개성의 지역적 특성과 그 지방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소설의 뼈대다. 「미망」만큼 개성을 세밀하게 그린 박완서의 작품은 없다.

박완서 문학의 특징 중 하나는 소설 속의 내용이 자신의 과거 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박혜경은 “박완서의 문학 활동은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과 겹치는 자전적 체험의 소재들을 다양한 형태로 형상화하는 통시적 흐름과 작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자기 시대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침예한 동시대적 관심사로 특징지어지는 공시적 흐름이 조화롭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분석한다.⁴⁾

한국전쟁 직후 미군 PX 근무 시절 작가와 박수근 화백과의 만남은 그의 등단 작품 「나목」을 집필한 계기가 되었고 어린 시절 고향 개성의 박적골과 서울살이의 추억은 「엄마의 말뚝」,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에 배경으로 배치된다. 「도시의 흥년」에서 광장시장에서 일하는 김복실 여사의 모습과 군대에 입대하는 세태 등은 친인척들의 실제 상황이 배경이 되었다. 「카메라와 워커」는 70년대 초반 작가의 조카가 실제로 겪은 체험을, 「휘청거리는 오후」는 남편 호영진의 공장체험이 소재가 되었다.⁵⁾

작가의 작품 속 이야기가 설정은 허구이지만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녹여내고 있어 더욱 현실적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온다. 박완서는 자신의 소설 쓰기에 대해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을 쓸 뿐이라거나 혹은 ‘경험하지 않는 것은 못 쓴다’는 등의 말을 한 바가 있다.⁶⁾

이렇듯 체험적 사실을 배경으로 작품을 주로 써온 박완서이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체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구적으로 내려오는 실화와 취재를 바탕으로 쓴 작품이 「미망」이다. 「미망」은 작가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 그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집필했는지도 모른다.

박완서는 「미망」을 쓰려고 수년간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해독하기 위해 한문 공부를 했다. 또 『송도민보』를 통해 관련 자료수집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증언을 들었다.⁷⁾ 설정은 허구이지만 완전한 픽션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 스토리를 구성하고 그 시대를 재현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역사적 사실들이 작가가 기억하고자 한 「미망」의 시대정신으로 살아난다.

「미망」은 인삼재배와 상업을 기반으로 거대 자본가로 성장한 전처만과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4대에 걸친 가족 연대기가 줄거리를 이룬다. 19세기 후반부터 한국전쟁이 끝나는 시기까지(1888년부터 1953년)를 배경으로 조선 말 봉건 체제의 몰락,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 근대화와 자본주의 질서 체제에 동반되는 다양한 장면들과 함께 소설은 역사적 격동기에 살아가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김종희는 “「미망」은 봉건시대의 제도와 관습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조선조 말기에서 현대사의 한복판으로 이어지는 6·25 동란 직후까지 파란만장한 시대사의 흐름을 생동하는 인물들의 구체적 형상과 더불어 조감하고 그 내면적 의미의 추적과 해명을 위한 그물을 던지고 있다”고 평가한다.⁸⁾

권영민은 “소설 「미망」은 가장 박완서 적인 것들이 모여져 이루어졌고 박완서 적인 소설의 대표적인 형태로 규정될 만하다”며 “작품의 규모와 내용이 근대사의 격동기에 볼 수 있었던 우리 민족의 삶의 풍속도에 다름 아니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고 평가한다.⁹⁾

「미망」은 근대사의 사료적 가치와 개성의 풍속사로서 뿐만 아니라 미시사로서 인삼 역사의 소중한 증언들이 담겨 있다. 「미망」에는 한국 인삼업의 메카인 개성의 시대상과 인삼 상인의 정신, 식민지 시절 일본의 인삼 약

³⁾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동지, 1997), 6쪽

⁴⁾ 박혜경,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을 읽는다』, (열림원, 2003), 13쪽

⁵⁾ 호원숙, 『우리 시대의 소설가 박완서를 찾아서』, (웅진닷컴, 2002), 105-109쪽

⁶⁾ 박혜경, 위의 책, 20쪽

⁷⁾ 호원숙, 위의 책, 117쪽

⁸⁾ 김종희, 『근대의 선두에 선 작가의 고향』,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8호, 2006), 127쪽

⁹⁾ 권영민, 『권영민 평론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5), 184쪽

탈과 삼업인의 저항, 인삼 자본의 근대 자본주의로 전환 등의 흔적이 화석처럼 박혀있다. 특히 의미가 깊은 것은 소설 속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과 조응해 인삼사의 한 장(章)이라는 점이다.

박완서의 장녀 호원숙은 「미망」에 나오는 줄거리는 그냥 픽션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작가가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하고 기록을 뒤지고 어렸을 적 들었던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증언한다. 실제로 「미망」의 인삼 관련 스토리는 사실에 부합해 소설에 나오는 인삼 이야기와 실제로 발생했던 사실들을 비교해 분석한다면 「미망」의 인삼 사료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삼 종주국은 한국이지만 문학작품 중에 최인호 「상도」와 박완서의 「미망」처럼 인삼이 소설의 중심 뼈대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최인호의 「상도」는 인삼 상인 임상옥을 주인공으로 상인의 정신을 그려낸 작품이다. 의주 상인 임상옥의 일대기를 그린 「상도」는 인삼 무역으로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된 임상옥이 지키고자 했던 상인 정신을 주제로 한다. 김영하의 「검은 꽃」은 20세기 초 유카탄 반도의 에네켄 농장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착취를 당하던 조선인들의 이야기이다. 소설에 인삼 장수 박영순이 등장하는 데 실존 인물로 조선인 동포들이 받은 수모와 애환을 미국 교포사회에 처음 알린 사실을 담아 당시 인삼 상인들이 세계 곳곳을 누빈 활동이 그려지고 있다. 황석영의 대하소설 「장길산」에서는 장길산 군대가 인삼으로 군자금을 마련하는 내용이 나오는 등 한국 소설과 산문 곳곳에 인삼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들 문학작품 속에서 인삼은 부차적 소재로 쓰일 뿐 「미망」처럼 근간을 이루지는 않는다.

이 논문은 박완서의 「미망」이 지닌 문학성보다는 소설 줄거리의 사실 제시와 시대상을 분석 대상으로 해 인삼의 가치와 삼업인(蔘業人)의 정신을 살펴봄으로써 「미망」이 남기고자 한 인삼의 상징성을 고찰한다. 박완서 소설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인삼의 상징성」을 주제로 집중 분석이 거의 없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II. 선행연구

박완서 소설을 주제로 국회도서관에 등재된 석박사 논문은 347편, 연속간행물, 학술 기사는 479편에 이른다.¹⁰⁾ 대다수의 논의가 가족주의, 페미니즘, 근대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박완서의 작품은 연구자와 평론가들에 의해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분단 문학적 특성(나무, 엄마의 말뚝), 1970년대 이후의 급속한 근대화 과정과 더불어 형성된 중산층의 비속하고도 속물화된 일상적 삶을 신랄하게 꼬집는 세대 소설적 특성(휘청거리는 오후, 도시의 흥년), 여성들이 가정 혹은 사회 속에서 겪는 갖가지 불이익의 사례들을 소재로 한 여성 소설적 특성(살아있는 날의 시작, 서있는 여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¹¹⁾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젠더 의식을 중심으로 박완서의 문학을 분석한 논문을 쓴 사람은 김미현, 김세나, 김윤정, 정은비, 이은하 등이 있다. 김윤정은 박완서 소설의 여성 인물을 성적 주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담론화된 젠더 주체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젠더 의식이 달라짐은 여성의 젠더 정체성이 변이(變異)함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즉 여성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권력과 담론의 효과이고 여성은 제도와 문화로써 규범화된 젠더 담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주체’라고 보는 시각으로 여성성을 소설화했다고 보았다. 박완서의 문학이 여성 인물을 통해서 보편적 인간애를 강조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의 건설을 염원한다며 여성주의 문학으로서 남성을 적대시하지 않고 생애의 동반자로 구성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¹²⁾

정은비는 박완서의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성을 분석해 여성이 억압적 경험을 통해 주체성을 상실해가는 모습, 억압적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저항, 넘

¹⁰⁾ 국회도서관 주제어 '박완서' 검색(2021년 7월 8일 현재)

¹¹⁾ 박혜경, 위의 책, 13쪽

¹²⁾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치는 생명력과 포용력으로 건강한 여성성을 내면화하여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 등 다양한 여성성 양상을 고찰하고자 했다.¹³⁾

박완서의 소설을 대상으로 고향에 대한 분석한 논문도 눈에 띈다. 마이사 고젤은 작가의 기억 속에서 고향인 개성이 다른 장소 서울과 비교 대상에 따라 분위기, 전통, 풍습, 작가의 기억 등을 세부 주제로 분류하며 작가의 생애 성장 과정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험에 따른 고향에 대한 인식 변화과정을 분석하고자 했다. 또 작품 속에 나온 역사적 배경이 실제로 작가와 주변 인물들에게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 배경을 분석했다.¹⁴⁾

가족, 모성에 대한 연구로는 임현미, 신윤정, 김연화, 이진주 등이 있다. 임현미는 박완서 작품 속의 가족 구조는 왜곡된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전쟁의 폭력성, 개인의 이기심에 의해 붕괴되고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은 소외되고 단절을 겪는 현상이 집중적으로 드러난다며 현대사회가 붕괴되는 모습을 가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사회가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것도 가족을 통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¹⁵⁾ 이진주는 작품 속에 나타나는 모녀 관계 분석을 통해 어머니와 딸의 관계 형성과 모녀 관계 양상 구축 및 서로 간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분석했다.¹⁶⁾

박완서의 문학작품 속에서 노년을 주제로 한 연구는 엄미옥, 이수봉, 정미숙, 류제분, 김미영, 김영아 등이 있다. 엄미옥은 「저물녘의 황혼」과 「여덟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을 중심으로 노년 인물이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리코르의 이야기 정체성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노년을 혐오하거나 부정하면서

건강하거나 행복한 노년의 표상만을 강조하는 성공한 노화의 지배적 담론에서 벗어나 나이 들의 양상을 지지하고 그 존재론적 의미를 추구한다.¹⁷⁾

박완서의 문학 속에 그려진 전쟁 및 분단체험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로는 강용운, 강진호, 우현주, 김영미 등이 있다. 강용운은 박완서 작품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기억과 주체의 형성에서 20살 성인의 입구에서 꿈으로 부푼 대학 신입생으로서 목도한 한국전쟁은 그녀가 청소년기에 꿈꾸었던 청춘의 열정을 파괴했으며 인간과 세계에 대한 환멸을 가져다주었다며 박완서의 작품세계는 전쟁과 분단, 이데올로기적 억압으로 인한 폭력성과 여성의 비인간화에 대한 욕망의 부재와 결핍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¹⁸⁾ 최희숙은 전쟁 체험과 분단의 내용이 나타난 작품인 「나무」,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그 가을의 사흘 동안」에서 작가가 자신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전쟁 체험을 다룸으로써 우리 민족의 상처가 토막 난 채 그대로 아물어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쓴 것이라고 평가했다.¹⁹⁾

박완서의 문학작품에 대한 고찰은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박완서 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미망」을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미망」에 대한 논의는 가족주의, 여성의 대물림, 근대공간의 건축술, 음식문화와 풍속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김종희는 「미망」은 역사적 상상력을 통하여 개성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뿌리를 둔 가족사의 근원을 캐어 들어감으로써 시대사의 흐름 속에 숨어있는 구체적 삶의 실상을 조명한 작품으로 보았다. 이는 단순히 있었던 사실로서의 삶을 발굴하고 조명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안고 있는 내면적 의미를 찾아내고 이를 해명하는 특

¹³⁾ 정은비,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¹⁴⁾ 마이사 고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기억-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¹⁵⁾ 임현미,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족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¹⁶⁾ 이진주,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¹⁷⁾ 엄미옥, 「박완서 노년 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의미」, 『횡단인문학 7호』, (숙명인문학연구소, 2021)

¹⁸⁾ 강용운, 「박완서 작품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기억과 주체의 형성」, 『인문학술』, 창간호, (순천대 인문학술원, 2018)

¹⁹⁾ 최희숙, 「박완서 소설연구=자서전적 소설과 전쟁체험 소설 중심으로」,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2007

성으로 분석했다.²⁰⁾

박완서는 「미망」이 식민지 시대를 거쳐 전쟁과 분단의 시대에 이르는 시간 속에서 타자화되었던 여성의 자기 찾기 역사를 구현하고 있으며 당대 부박한 현실 속에서 가치와 규범이 전도되었고 가족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을 찾았다.

허정인은 「미망」에 드러난 핵심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를 가부장제, 자본주의, 민족주의로 요약하며 전처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부장제적 질서 공간 안에서 여성 주체의 변혁 가능성, 토착자본 만들기의 서사화, 식민지 민족주의 서사는 극복하고자 하는 시대적 의미를 타진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²¹⁾

김혜란은 「미망」에 나타난 근대성에 주목하며 근대의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혼재되어있는데 부정적 근대의 극복 가능성은 인삼이라는 상징 기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와 함께 자신의 삶 속에 타자를 껴안으며 탈근대성으로 나아가는 인삼의 정신을 구현하는 인물들이 주요 인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²²⁾

권영빈은 「미망」에 나타난 근대 개성의 로컬리티를 젠더 지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의 작품세계를 규명했다. 그간 「미망」은 역사, 가족사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질로 인해 박완서 소설연구의 자장에서 자주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박완서가 집, 가정에서 벌어지는 가족 이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던 근대성 비판이라는 테마와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구한말과 식민지 조선이라는 전환기적 시공간을 전면화 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잘 드러낸다고 보았다. 권영빈은 개성의 로컬리티는 근대 상업자본주의 발달과 민족자본의 거점이라는 경제, 정치사적 대항성을 내포한다고 보았는데

여기에는 인삼 자본이 토대가 되었다고 분석했다.²³⁾ 「미망」을 통해 개성의 근대성을 분석한 권영빈과 김혜란은 그 토대로서 인삼 산업과 자본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삼 상징성을 주목한다.

홍기돈은 개성이 인삼 주재배지라는 사실을 박완서가 염두에 두었다며 전태임이 삼포를 매개로 하여 그 지역의 다른 농가들과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민족의 수난상을 환기시킨다고 분석했다.²⁴⁾

「미망」에 대한 분석과 평론은 가족주의, 여성의 대물림, 근대성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많다. 「미망」의 큰 뼈대인 인삼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 일본의 인삼 수탈, 인삼 상인의 근대 자본가로의 전환, 인삼 상인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 인삼농업의 현실 등을 바탕으로 인삼의 상징 기제에 대한 분석은 미약하다. 소설 「미망」이 우리나라 인삼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중요한 사료라는 점에서 인삼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미망」에 대해 적지 않은 분석이 있었지만 삼엽(蔘業)의 상징성에 대한 분석은 미진했다는 점을 인식, 이 논문은 인삼의 상징 기제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III. 「미망」에 나타난 인삼의 상징

개성은 고려인삼의 메카다. 개성이 고려인삼의 중심이 된 것은 인삼 농사가 장기간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자본집약형 농업으로 개성상인의 자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자본력만으로 개성인삼의 명성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 개성상인의 상훈(商魂)과 상술(商術)이 인삼과 결합되면서 고려인삼은 가치를 높였고 상도를 중시하는 인삼 상인 정신이 정립된다. 따라서 인삼은 개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박완서는 개성인삼과 관련해 “송도 시내에 사는 여자

²⁰⁾ 김중희, 「근대의 선두에 선 작가의 고향」,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8, 2006)

²¹⁾ 허정인,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9

²²⁾ 김혜란, 「박완서의 미망연구—근대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²³⁾ 권영빈,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탈) 근대공간의 건축술: 젠더 지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성의 탄생」, (여성문학연구 45, 2018)

²⁴⁾ 홍기돈, 「미망」 2010년대에 부각되는 민족문학으로서의 의미, 「미망 3권」, (세계사, 2012), 445-446쪽

들이라고 다들 장롱 걸레질, 솔뚜껑 행주질만 하고 산 것은 아니다. 그들도 기회만 있으면 체면 가리지 않고 경제활동에 나섰다. 그때가 가정부인들이 빈부나 지체를 가리지 않고 부업에 나서는 때이다. 조합 너른 마당에 큰 맷방석을 깔고 인삼을 산처럼 쌓아 놓고 여자들이 둘러앉아 대나무 칼로 인삼껍질을 벗겼다. 한 맷방석에 아홉 명, 열 명 혹은 열한 명씩 둘러앉는다. 열심히 손도 놀리고 입도 놀리며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면 대개 오전 중에 끝이 난다.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임금이 지불된다”고 어릴 적 보았던 당시의 상황을 선명히 기술한다.²⁵⁾

「미망」은 개성지방에서 인삼으로 큰 부를 일군 거상(巨商) 전처만 일가의 이야기다. 전처만은 ‘5리(里)를 별기 위해 10리(里)를 간다’는 개성상인의 전형이다. 전처만 가족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줄거리 속에는 일제 강점, 독립운동, 한국전쟁 등 한국 민족사의 격동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주인공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배치된 것이다. 그 사건들 안에서 인삼을 매개로 작가는 개성과 민족정신, 상인 정신을 구현한다. 즉 실재하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미망」은 주인공들의 삼업(蔘業)에 대한 가치관과 인삼 상인이 근대 자본가로 전환하는 진취성,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민족정신, 그리고 인삼 농사와 실패 등을 사실적으로 기록해 인삼사의 한 장으로 펼쳐진다.

박완서가 「미망」을 집필하면서 처음부터 인삼 이야기를 큰 줄거리로 배치하려 했음은 작가의 말에서 잘 나타난다.

“지금은 어떤지 알 길이 없지만 개성 개풍 지방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분단 직전까지 오랫동안 인삼고장과 상업의 중심지로 독자적인 번영과 독특한 문화를 누려 왔었다. 따라서 삼포와 장사 얘기를 빼고는 도저히 개성인의 전형을 만들어 낼 수가 없었다. 개성에 살면서 그 두 가지를 외면하고 산 별종을 그럴 바에야 구태여 개성 땅을 무

대로 할 필요가 없어지고 만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개성 근교에 살면서 인삼 농사도 장사도 하지 않고 오로지 벼슬에만 연연해온 좀 치사한 별종의 집안이었다. 내가 여지껏 써온 소설의 대부분은 나의 직접적인 체험이나 가족들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 또는 내 핏속에 누적되어 거의 기질화 된 조상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내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소설을 쓰면서는 그게 부족한 게 가장 고통스러웠다. 자료나 이야깃거리를 아무리 많이 모아 들여도 내가 작중 인물화 하지 않고는 써지지 않는 나의 작법이자 한계는 회를 거듭할수록 요지부동 나를 괴롭혔다.”²⁶⁾

작가의 말에서 보듯 ‘개성과 인삼’에 대한 박완서의 자부심과 애정은 남다름을 알 수 있다. 체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녹여낸 다른 작품과 달리 「미망」 집필에는 많은 작가적 고통이 따랐고 취재에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고백은 박완서가 고려인삼을 뼈대로 소설을 전개하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미망」의 인삼 이야기가 더욱 가치 있는 것은 작가의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발로 뛰며 확인했고 소설 속 열개는 작가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들로 사실에 상상이 덧붙여져 재현한 다큐픽션(docufiction)에 가깝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미망」은 한국 인삼사의 비망록(備忘錄)이다.

박완서는 평론가 황도경과 대담에서 소설 「미망」의 구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 개성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 숙부, 이런 사람들로 부터 들은 전설이 있어요. 어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은 몇 개의 집안 이런 몇 개의 집안 얘기를 모아서 복합해서 하나의 가계를 만들었어요. 우리 시골에서 한참 떨어진 데가 그전에 내가 여우골이라고 그랬나 했는데 원 이름은 ‘탁골’이에요. 거기에 나중에 불타서 잿더미만 남은 외

²⁵⁾ 박완서, 「내 고향 개성 이야기」, 227쪽

²⁶⁾ 박완서, 「미망 상권」, (세계사, 2016), 8쪽

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다들 두려워했어요. 작품에서 태임이 엄마가 태남이를 낳은 그 비슷한 곳인데 음침하고도 어린 마음에 굉장히 불결감을 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머슴하고 괜찮은 집 마나님하고 어떻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거기서 염병을 앓다 어떻게 되었다는 뭐, 그런 저주받은 어떤 가계에 대한 전설인데 어린 마음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었죠. 거기에 살이 붙고 또 여러 거상들의 집안 이야기가 많이 전해 내려옵니다.”²⁷⁾

작가의 말과 평론가 대담에서 밝힌 「미망」 집필 과정에서 보듯 「미망」의 인삼 이야기는 그 시기 인삼을 둘러싼 실제 사건들과 일치된다. 실재하는 사실에 작가적 상상력이 더해져 그려진 「미망」속의 인삼은 작가가 마음에 담고 있는 인삼의 상징성을 내포한다. 「미망」에서 나타나는 인삼의 상징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고려인삼의 정기를 보여준다. 인삼 농사의 정성과 까다로움, 삼엽(蔘葉) 정신과 자부심을 통해 인삼의 영물(靈物)스러움을 드러낸다.

둘째, 일본의 인삼 수탈을 민족수난사로 상징한다. 이를 지키려는 인삼 상인들의 노력과 독립운동 지원을 중요한 테마로 풀어내 민족정신을 나타낸다.

셋째, 지주, 상업 자본에 머물지 않고 생산 자본으로 전환, 근대 기업화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개성 인삼 상인의 근대 자본가적 진취성을 보여 준다.

세 개의 상징성을 토대로 소설 속 이야기와 실제 사실을 비교 분석하면 인삼의 상징성은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1. 땅, 생명을 품은 영물(靈物)의 상징 인삼

「미망」에서는 인삼을 기제로 주요 줄거리가 전개된다. 「미망」의 배경이 되는 셋골은 ‘개성에서도 가장 삼포가 널리 분포돼 있는 청교면에 있는 50여 호의 큰 마을(상권 32쪽)로 인삼이 중요한 소재임을 소설의 초반부에서

설정한다. 작가가 직접 인삼재배 경험이 있거나 집안이 인삼 상인 출신은 아니지만 작가의 고백처럼 취재를 통해 사실적, 구체적으로 인삼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다. 인삼재배와 관련된 영농법이나 애환은 현재의 인삼 농사에 대입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밀하다.

인삼은 풍수인(風水人)이 빚어내는 농사,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작물이라고 한다. 이는 인삼 농사의 까다로움을 말한다. 서유구의 「임원십육지」는 “인삼은 빛을 싫어하고 음지를 좋아하며 물을 좋아하면서 서도 습한 것을 싫어한다.”라고 인삼의 성질을 말한다.

인삼은 해가림 시설로 직사광선을 피하지만 통풍이 잘 돼야 해 이른 아침에 해가림을 내리고 저녁에는 해가림을 올려 바람을 통해 주어야 한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짓기 어려운 농사다. 또 습기를 싫어해 배수가 잘되는 비탈진 땅에 심지만 물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 자라지 못해 산속에 있는 인삼밭을 찾아가 적당히 물을 주어야 한다. 이렇듯 손이 많이 가는 까다로움 때문에 농사꾼이 얼마나 자주 밭을 다니느냐에 따라 인삼 농사의 성패는 갈린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삼은 땅을 가리는 식물로 경작을 하기 전부터 예정지에 호밀, 청초를 심어 땅심을 기르고 전작물이 배추, 무, 파인 땅은 피한다. 좋은 인삼을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부터 만드는 게 첫 순서다. 홍삼의 원료인 6년 근을 키우기 위해서 7년 이상 농사를 짓는 셈이다. 이같은 까다로운 인삼 농사 과정을 「미망」은 인삼 농사 교본처럼 상세히 묘사하며 인삼 영농에 들어가는 정성을 세밀하게 보여 준다.

“음력 춘삼월은 천지간의 목숨 있는 것들이 고루 바뀔 철이었다. 사람이 일 년 계량할 곡식이나 채소는 절로 피었다 지는 산과 들의 꽃들과 달라 때만 타는 게 아니라 사람 손을 몹시 탔다. 그중에도 인삼은 더했다. 재득이가 도망갔을 때만 해도 올 가을에 켈 인삼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캐기 전까지도 손 갈 일이 많았지만 묘포에선 본포에 옮겨 심어야 할 묘삼이 자라고 있었다. 본포로 옮겨 심는 데는 삼월 중순부터 하순이 적기였다. 본포고 묘

²⁷⁾ 박완서, 『박완서의 말-소박한 개인주의자의 인터뷰』, (마음산책, 2018), 107쪽. (황도경, 문학정신 1991년 11월호 인터뷰재인용)

포고 간에 재득이의 손이 고루 안 미친 데가 없었다. 삼포에 면밭을 치고 견을 시기도 제대로 모를 어릴 적부터 이 집에 들어와 십여 년 동안에 어디다 내놓아도 뒤통지 않을 착실한 삼포 일꾼이 돼 있었다. 광에는 그가 겨우내 쉬지 않고 끈 새끼와 엮은 이영과 발과 청대가 산처럼 있었다. 그게 다 당장 삼포에 소용될 거였다. 북향의 화강암질의 사토로 된 본포는 지난봄부터 가을에 걸쳐 열 번이 넘게 깊이 쟁기질을 하고 너른 나뭇잎이나 풀로 시비하여 어린 묘삼을 받아들이기 알맞게 부드럽고 연하게 부풀어 있었다. ...(중략)...그러나 해농은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았다. 삼포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는 일 같은 건 일꾼을 사도되지만 묘삼을 캐는 일과 본포로 이식할 수 있나 없나를 가려내는 일엔 꼭 재득이가 필요했다. 재득이는 묘삼을 마치 야기 다루듯이 세심하게 노인네 공경하듯이 정중하게 호미로 캐면서 탄 일꾼들도 스스로 닦도록 하는 특이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캔 묘삼을 될성부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선별하고 될성부른 것도 다시 상, 중, 하로 구별해서 동이에 쟁여 놓고 유지로 밀봉하는 일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꼭 혼자서 했다.” (상권 157 쪽)

태임의 어머니 손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랜 시간 청상으로 지내다가 친척의 혼인 잔치 참석차 친정에 갔다가 머슴 재득이와 통정하여 혼외자 아들 태남을 낳고 자살한다. 이 일로 후환이 두려운 재득은 도망을 치는데 인삼 농사를 도맡아온 재득이의 부재로 인삼 농사를 걱정하는 대목에서 인삼 농사의 까다로움이 그려지고 있다.

6년을 키우는 인삼은 다년생 식물로 묘포에서 1년 키운 뒤 본포로 옮겨 5년을 더 자란다. 생육기간은 6년이지만 1년 전부터 본포 관리를 정성스럽게 해야 인삼을 잘 키울 수 있다. 묘삼을 다루는 재득의 태도를 통해 인삼 종자 관리의 정성스러움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때로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 자다란 일을 일일이 알고 싶어 하고 세밀한 손길이 미쳐야 하는 일을 손수

하러 들기까지 해서 산식은 주인마님에 대해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이를테면 7월달부터 시작되는 인삼 씨의 채종기에는 솟제 셋골에 머물며 손수 종자를 채취해 베자루에 담아서 냇물에 불려 불필요한 과육을 깨끗이 제거하고 음지에서 말려 종자 체로 쳐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선별하는 일까지 정성스럽고 찬찬하게 손수 해냈다. 또 파종하기 전 지루한 개갑 기간 동안도 마치 갓난아기 살피듯이 수시로 살피고 간섭하고 걱정하곤 했다.” (상권 210쪽)

인삼 농사가 6-7년 동안 예정지 관리-묘삼 식재-본포 이식-채종-개갑-파종-수확의 순으로 순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일꾼에게만 맡기지 않고 주인공 태임이 직접 인삼 농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나서는 대목은 삼업에서 정성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인삼 종자를 소중하게 다루는 태임의 태도에서 인삼 종자의 중요함을 간파할 수 있다. 인삼 종자의 소중함은 종장에서 경우와 경국이 목숨을 걸고 셋골로 인삼 종자를 가지러 가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상기된다. 이처럼 많은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는 농사이지만 이로써 완성되지는 않는다. 좋은 종자를 얻더라도 좋은 밭을 구하지 못하면 허사다. 땅 고르기의 어려움과 땅의 정기가 필수임을 「미망」은 보여준다. 땅에 대한 믿음, 생명(씨앗)에 대한 믿음이 인삼 농사의 근본임을 강조한 것이다.

재배과정에서 풍수해 또는 병충해로 수년간의 노력과 투자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작물이 인삼이다. 이 같은 변수와 다년생 작물이란 점에서 인삼 농사가 어렵고 막막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인삼 농사꾼들의 태도는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우리 민족의 기다림을 의미한다.

“셋골에서 사람이 왔단 소리에 아씨는 가슴부터 내려앉았다. 몇 번째 셋골에서 오는 사람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된게 외삼촌 손태복씨가 관리하는 수만 삼포는 해마다 밟지 않으면 돌림병이었

다. 삼포가 만 간이 넘는다면 큰 부자 소리를 들을만 하지만 삼포처럼 까다롭고 세월이 많이 걸리는 농사도 없었다. 자그마치 육년을 무탈하게 키워야 수확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작을 기(忌)하므로 한번 수확한 땅은 적어도 십년 이상을 조나 보리 콩 등 인삼 외의 작물을 심어야 했다. 인삼이 얼마나 땅 정기에 민감하고 계걸스럽다는 것은 인삼을 수확한 지 십년이 채 안된 땅에다 인삼을 심어 보면 단박 안다. 아무리 깊이 갈고 거름을 잘해도 휴한(休閑)한지 십년이 못된 땅에선 세삼(細蔘)이 고작이었다. 또 인삼 재배를 일어난 앞두고는 잡곡도 못 심고 완전한 휴식을 줘야만 한다. 거름만으로는 안되는 땅 정기의 충분한 축적이 있어야만 비로소 좋은 인삼을 수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씨의 삼포가 수만 간이라 하나 해마다 수확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심었고 또 이미 수확하고 노는 땅도 적지 않은지라 일 년에 수확할 수 있는 땅은 많아야 몇 천 간에 불과했다. 그나마 흉작 아니면 병충해였고 평년작은 났나 싫어 한숨 돌리면 수매가가 형편없이 싸 그동안 든 품삯과 비료값을 셈하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종상이가 말없이 손해를 벌충해주지 않으면 땅 팔아 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하권 91~92 쪽)

1905년 개성 삼포에는 적부병²⁸⁾이 발생해 수년간 퇴치되지 않으면서 인삼이 절멸(絶滅)될 위기에 처했던 사실을 담고 있다. 인삼 병충해로 재배를 포기하는 경작자들이 늘었던 실제 상황이 배경이다. 실존 인물 손봉상은 적부병의 만연으로 개성 인삼이 소멸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에 건의해 1906년 개성에 관립 종삼회사가 설립된다. 종삼회사는 우량한 묘삼을 재배해 경작자들에게 종자를 배급함으로써 개성 인삼의 명맥을 다시 이었다. 정부는 삼정과를 개성에 설치하고 손봉상을 책임자로 임명해 적부병 예방과 삼업 장려에 진력했다. 하지만 적부병의 극심한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이 선듯 나서지 않자 손봉상은 자신부터 재배면적을 대폭 늘리고 우량 종삼

으로 경작 시범을 보이자 개성 농가들이 인삼재배에 다시 나서 개성인삼의 명맥은 이어졌다.²⁹⁾ 이같은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다.

“아씨가 셋골로 다녀가시고 나서 삼농사는 영영 작파허 시기로 했다는 소문이 짹짹그르르한데 그제 증말이니까?” 감히 대드는 듯한 말투였다.

‘왜 증말이면 안되겠나?’

“아선 적부병 같은 무서운 천재도 겪어보신 어른이시잖 시니까, 이번 일은 순전히 사람 잘못인데 사람 잘못은 사람 쓰기에 따라 또 사람 마암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고쳐 나갈 수 있는거 아닌감요. 아씨가 그만 일로 폐농을 하실 라치면 빈대 죽는거 고슴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진 배없으신 멧구리 짓이구먼요.”(하권 106)

적부병으로 태임이 인삼 농사를 포기한다는 소문에 일꾼 산식은 인삼 농사를 그만 두는 것은 멧구리 짓이라며 말린다. 적부병 때문에 인삼 농사를 포기하는 것은 일제의 탄압과 압박으로 인한 민족정신의 좌절을 대유한다. 이는 일제에 강점당한 한국의 고난에 빚낸 이야기로 해석된다. 인삼이 적부병으로 절멸될 위기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임의 삼농사는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정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은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임의 삼농 가업 지키기는 관의 조변석개(朝變夕改)를 탓하며 인삼 농사 포기를 내비치는 아들 이성에게 전처만이 삼농사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대목과 맞닿아 있다.

“아버님, 일 년 농사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에 어드렇게 자그마치 육년이나 걸리는 삼농사를 질 신명이 나시겠사니까?”

“어드렇게 인삼 농사와 쌀농사를 비교하는? 인삼은 자고로 은(銀)과 맞먹어, 인삼이 열근이면 은으로 이백 냥

²⁸⁾ 인삼의 뿌리가 적색을 띠면서 썩는 병

²⁹⁾ 김조형, 「인삼왕 손봉상의 업적을 통해 본 개성인삼 개척사」, 《인삼 문화 2권》, 2020), 32쪽

도 더 나가고 은 이백 냥이면 얼마 줄 아는?”

“그건 우리가 농사지은 삼이 홍삼이 되고 포삼(包蔘)이 됐을 때의 값이 아닙니까요? 은과 맞먹는 것만치 호시 탐탐 수탈을 노리는 눈이 좀 많시니까? 채 일년 앞도 못 내다보게 바뀌는 인삼 정책만 해도 어떡하면 중간에서 협잡질이 용이할까만 생각했지 삼농가의 이익을 생각해서 바뀐 적이 어디 한번이나 있었시니까? 도라지 값처럼 싸게 수매하고 나서도 뒤탈이나 없으면 좋게요. 부정 인삼을 끼워 넣었다고 모해를 잡아 곤장을 지곤 돈을 써야 풀어주는 일까지 있답니다요...(중략)...“이건 우리 가업이다. 전(田)을 읊애고 장사를 안하면 안할까 삼포를 처분할 수 없다.” 전처만은 단호하게 말했다...“농사꾼은 우직해야 하느니, 꺾부러져 될 일이 아니니라.”(상권 64쪽)

당국이 갖은 구실을 내세워 수매가를 낮추고 트집을 잡는 횡포에 분개하는 아들 이성에게 전처만은 인삼밭을 파는 것은 가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인삼 상인의 천직 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농사의 근본인 우직함을 강조한다. 인삼으로 거부가 된 전처만이지만 인삼을 단순한 부의 원천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민족혼으로 여긴다. 이는 개성상인의 상혼으로 「미망」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삼 상징 중의 하나이다.

이같은 인삼 농사 지키기는 태남으로 이어진다. 독립 운동으로 옥고를 치루고 나온 후 셋골로 들어와 인삼 농사를 짓는 태남에게도 인삼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지켜야 할 천직이다. 머슴 재득의 인삼 농사 솜씨는 태임의 어머니 손씨와 재득 사이에서 태어난 태임의 이복동생 태남에게 이어진다.

“추수가 끝난 후에도 태남이는 아들 경국이를 데리고 일손을 놓지 않았다. 내년엔 삼을 심을 예정으로 올해 놀린 땅을 소쟁기로 깊이 가는 일을 비롯해서 해를 가릴 밭, 이영, 기동목, 청대, 굵은 새끼줄, 가는 새끼줄, 훗 등 삼포에 드는 재료를 마련하는 일을 겨울 안에 끝마쳐야만 했다. 별로 바쁘게 굴지 않으면서도 쉬지 않고 일하는 태남이를 볼 때마다 경우는 미안하고도 마음이 놓였다. 저

렇게 애써서 삼포를 만들어봤댔자 수확할 날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문득 서글퍼지기도 했다. 만 오년이나 걸리는 느긋한 농사를 짓기엔 세상은 너무도 종잡을 수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 뜻을 비쳤더니 태남이는 덤덤한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다.

‘한치 앞이 안 보인다고 안달할게 뭐 있나. 이럴 때일수록 먼 앞날을 내다보고 사는 게 속 편하다네.’ (하권 437~438 쪽)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긴 기간 인삼 농사의 막막함을 걱정하는 경우의 푸념에 아랑곳없이 묵묵히 인삼밭을 가꾸는 태남에게 인삼은 미래의 희망이다. 인삼 농사의 까다로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6년을 기다려야 하는 인삼 농사이지만 땅에 대한 믿음, 생명에 대한 믿음으로 희망을 잃지 않는다.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상황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버리지 않음을 신앙처럼 영물(靈物) 인삼에 대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인삼 상인의 상혼(商魂)과 민족주의 정신

「미망」에서 인삼의 수난은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상징한다. 일본인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개성 삼포 주인들과 작당하여 삼포를 유린하는 행태는 친일파 한국인을 떠오르게 한다. 일본인의 인삼 도적질과 이에 맞서는 인삼 상인의 대치가 중요한 대목마다 배치된다.

일본인 인삼 도적을 막다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아 전처만의 집에서 치료를 받던 종상이 태임을 만나 부부의 연으로 이어지고 종장에선 태임이 ‘인삼 도둑을 쫓는 소년 종상’을 떠올리는 서사는 「미망」에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인삼수탈=민족수난’이라는 주제로 상징화된다.

조선 후기 일본인들의 조선 거주가 급격히 늘면서 일본인들의 인삼 절도는 기승을 부렸다. 초기에는 홍삼을 몰래 빼돌리는 수준이었으나 개성 증포소에서 제조한 인삼을 빼돌리거나 증포소 이외의 곳에서 밀조(密造)하는 단계로까지 대담해진다. 당시에는 일본인에게 인삼을 파는 것은 금지되어있었다. 그러나 인삼의 효능이 대

단하고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안 일본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삼을 빼돌리고 홍삼을 몰래 만들어 큰 수익을 얻으려 했다.

일본인들이 엄한 감시망을 피해 갖은 방법으로 인삼밭을 통째로 도적질하는 형태는 화매(和賣), 능채(勸採), 도채(盜採) 등 세 종류였다. 화매는 삼포주와 일본인이 짜고 중간에 대리인을 내세워 밀매 계약을 한 뒤 수확기가 되면 일본인이 밤중에 인삼을 캐 간다. 그러면 삼포주는 도적질을 당한 것처럼 관아에 신고하는 식으로 일본인과 짜고 치는 방식이다. 능채는 일본인이 삼포주와 전혀 관계없는 거짓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한 것처럼 꾸미고 인삼을 몰래 캐는 것이다. 도채는 가짜 계약이나 대리인조차 없이 인삼을 강탈해가는 무지막지한 도적질이다.³⁰⁾

전처만은 인삼 상인이 잠상과 협잡을 하는데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낸다. 아들과 의절할 정도로 철저하게 일본인과의 인삼 불법 거래를 반대한다. 일본인에게 인삼을 팔아 넘기는 것은 민족의 정기를 빼앗기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미망』에는 실재했던 일본인들의 인삼 도적질 양태와 무기력한 우리 관의 대응이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일인 인삼 밀수꾼들이 인삼을 밀매하는 방법은 교묘하고도 악랄했다. 먼저 삼포에 거간꾼을 파견하여 삼포주와 밀매매 계약을 성립시켰다. 그런 계약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던 것은 이 땅의 관리의 타락이 극도에 달했을 때라 수매 과정에서 온갖 관의 비리와 수탈을 겪어야 했고 수매가가 생산가에도 못 미치게 저렴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만 후한 값을 쳐주어도 삼포주는 솔깃해졌다. 이렇게 밀매매 계약을 성립시킨 다음 야음을 틈타 인삼을 채굴해 갔고 삼포주는 다음 날 아침 삼포가 도채당했다고 관에다 거짓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들 삼적(參賊)은 대부분 일본 낭인들이었으며 일본도로 무장하고 작당하여 도채에 임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삼포주들이 이런 밀매매 계약에 의해 좋은 값으로 인삼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초기의 일이고 그것이 성행하고 그것의 짝잡한 재미를 안 그들은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져 영세한 삼포에 미리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채취기에 삼포를 강점하는 방법을 썼고 나중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삼포를 강탈하는 순 날강도질까지 성행했다. 이런 날강도질은 한복을 입고 한인으로 가장한 일인들에 의해 행해졌기 때문에 일본 공관에 항의해도 목살 당했고 우리 쪽 관도 이미 왜의 행패에서 백성을 보호할만하지 못했다.” (상권 82~83쪽)

제물포가 개항되면서 일본인들의 인삼 절도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소설의 묘사대로 일본인 도채꾼들은 짐꾼과 호위대를 배에 태워 제물포를 출발해 개성 근처로 들어갔다. 그들은 30~50명 규모로 칼과 총으로 무장하지 했다.

탁지아문과 경기 관찰사 사이에 오간 문서에 당시 상황이 잘 나와 있다. 1897년 경기관찰사가 의정부에 보낸 보고서 중에 ‘일본인들이 조선인 복장을 하고 삼포에서 인삼을 매입할 목적으로 내왕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인삼을 거래하는 것은 통상조약에서 금하고 있는 바이니 궁내부와 외부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전문이 있다. 일본인들의 인삼 절도행위는 1894년부터 1899년까지 가장 왕성했다. 『경기도 거래안』과 『황성신문』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1897년 17,940간, 1898년은 58,720간에 달했다.³¹⁾

“수천 간 가진 삼농도 백간 가진 삼농도 삼포에 굼벵이 한 마리 잡을 생각은 안허구 어드럭 허면 딸깍발이들과 연줄이 닿아 노략질을 당할까 침을 흘렸으니 삼농사에 망조가 안 들겠수. 딸깍발이들이 어떤 놈들이유. 노략질 값이 점점 헐값이 되다가 나중엔 정말 노략질을 해가게 됐으니 노략질 값이 바로 인삼 값이니 영물인 인삼이 안 노하게 생겼수? 아무튼 그 딸깍발이들이 삼포에 드나들고부터 망하구 도망가는 삼농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니

³⁰⁾ 옥순중, 『은밀하고 위대한 인삼이야기』, (이가서, 2016), 144쪽

³¹⁾ 옥순중, 위의 책, 145쪽

까요. 뒤늦게 젊은 일꾼들이 힘을 모아 왜놈 도굴꾼들을 목숨걸고 잡으니 또 뭘 허우? 유수가 되레 젊은 일꾼들을 모해 잡아 실컷 매질하고 가두고 했으니 갈수록 태산이라고 젊은이들만 불쌍하지. 하긴 언제 유수가 옳는 사람들하고 한통속 돼준 적 있었잖. 모해 잡혀 되레 죄인으로 몰린 일꾼들이 장차 해먹을 짓이 또 뭐가 있겠쥬? 젊은 혈기에 양심 먹고 화적떼나 될 수 밖에.”(상권 171쪽)

실제로 구한말 개성에서는 인삼밭 주인과 도채하는 일본인들간에 싸움이 일어나곤 했다. 일본인 수십 명이 밭에서 인삼을 도채하다 동네 주민과 싸움이 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본인의 행패가 당시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때마다 일본 경찰은 쌍방 피해로 처리해 개성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급기야 1898년 개성 인삼 농민들은 개성 부윤에게 일인들의 도적질을 막아달라는 소청을 하지만 관은 오히려 개성민들에게 책임을 씌우려 해 개성민요(民擾)가 일어났다.³²⁾ 19세기 말에 이미 국운이 쇠한 한국의 관은 속수무책이었다. 관의 가렴주구와 무기력으로 인삼 농민들의 깊어진 시름은 쇠락해가는 대한제국의 모습이었다.

극성을 부리던 일본인들의 도채를 막으려다 이종상은 오히려 관으로부터 수난을 겪는 대목은 이러한 내용을 전한다. 전처만은 원한 관계에 있던 양반 이생원의 손자 종상이가 아들 부성이 경영하던 청포전의 사환으로 들어오자 자신의 첩 해주덕을 삼포에 보내 일을 돕도록 한다. 그러다 종상은 인삼 도적을 만나고 태임과의 인연은 시작된다. 작가는 당시 인삼 농민들이 당하던 현실을 중요한 줄거리로 구성해 일본에 맞서는 종상이와 태임의 만남을 구성한 것이다.

“이성이가 일찌거니 거간꾼과 잘 흥정을 해서 도굴을 가장한 삼포 밑대로 재미를 본 것과는 대조적으로 해주덕의 천 간 미만의 삼포는 일인들의 도굴이 성행하던 막바지에 진짜 도둑질을 당한 것이었다. 그런 사태를 예비하고

고용한 종상이가 스무 살의 기운께나 쓰는 청년이 되었건 만도 칼과 총을 가진 그 난폭한 도적들을 혼자서 대항하기엔 한참 못 미쳤다. 그러나 종상이는 조선사람 복장을 했으되 발가락을 끈으로 펜 나막신 한 짝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나막신을 증거로 그가 지키던 삼포를 일인이 도굴했다고 관아에 고발했다. 그러나 관아에선 그가 제시한 증거품을 무시하고 되레 그를 무고죄로 몰아 죽지 않을 만큼 매를 쳐서 내보냈다. 온몸이 장독으로 통통 부은 종상이를 전처만이 거두어 행랑채의 한 방을 치우고 간호하던 중 그런 일이 생긴 것이었다.”(상권 87쪽)

빈손에서 시작해 셋골 땅을 모두 사들일 정도로 자수성가한 전처만은 어떤 금전적 이익이 있더라도 일본인과의 인삼 거래는 상도에 어긋남을 극도로 경계하고 일본인과 야합으로 돈을 벌려는 셋째 아들 이성을 경멸한다. 전처만의 아들은 셋인데 주인공 태임의 아버지인 큰 아들은 병약하여 일찍 죽고 둘째 부성과 셋째 이성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는다. 전처만은 농사꾼 기질이 강한 둘째 부성에게 전포를 물려주고 장사꾼 기질이 강한 셋째 이성에게 셋골의 삼포를 물려준다. 이는 이성의 재주가 승하여 상도를 저버릴까 걱정되어 6년간의 기다림과 성실, 정직함을 필요로 하는 인삼 농사를 통해 아들이 개성상인의 도를 배우게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해괴한 소문이 자자해. 우리 삼포가 만일 그런 일을 당하면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내 재산을 관리할 재목이 못되는 걸로 치고 한 뼉의 땅도 안주겠다. 그런 줄 알고 삼포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한 마디로 못을 박은 전처만은 아침도 뜨는 등 마는 등 태임을 앞세우고 송도로 돌아와 그날로 종상이를 강릉골로 보냈다.”(상권 74쪽)

“이성이는 전영감이 일찍이 지나치게 이재에 밝음을 꺼려 가게 대신 삼포를 맡겼으나 타고난 재주는 어쩔 수가 없는지 왜상과 짜고 도굴을 가장하여 삼포의 세금을

³²⁾ 옥순중, 위의 책, 146쪽

³³⁾ 「미망」, 상 74쪽

포탈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겨 그 못된 본이 널리 퍼지게 한 장본인이었다. 그렇게 크게 한탕 해 먹고 난 그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왜상과의 거래를 유지하고 있었다. 석유, 광목, 비누, 양젓물, 농기구 등 왜상이 들어온 새로운 물건들로 인근 농민들 눈을 흘려 외상으로 들여 놓게 하고 가을에 추수한 곡식으로 쳐 받아가는 방법으로 왜상과 죽이 맞아 막대한 축재를 한 걸로 소문이 자자했다.”(상권 240쪽)

전처만은 일본인 잠상과 밀매로 인삼의 정기를 해치는 아들에게 한 뼉의 땅도 물려줄 수 없음을 선언한다. 전처만이 지키고자 한 것은 일본인과 협잡하여 돈을 버는 혈육보다는 개성상인의 상도였다.

이렇듯 기승을 부리는 일본인들의 인삼 노략질에 대처함에 선 인물로 전처만과 전태임, 이중상을 내세워 ‘인삼상인 정신=민족정신’을 상징 기제화 한다. 일본의 수탈에 적극 대항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앞잡이인 경성의 고관 접대에 인삼이 활용됨은 태임에게는 치욕이었다. 실제로 개성에 존재했던 인삼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태임의 시각을 전한다.

독립운동을 지원하다 징역살이를 하게 된 종상을 하루라도 빨리 빼내기 위해 아들 경우가 경성에서 내려온 고관을 개성 인삼으로 접대하는 것을 ‘인삼이 천해졌다’며 못마땅해 하는 태임의 뉘두리는 인삼의 가치가 훼손됨을 경계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구하려는 아들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면서도 그 방도로 인삼이 이용됨에 모독감을 느끼는 곤혹스러움이다.

“영빈관은 내부를 일류호텔 못지않게 꾸미고는 목욕물을 비롯해서 음료수, 비누, 화장품, 과자에 이르기까지 온통 개성 특산의 인삼 일색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삼장이라고 불렀다. 북쪽에 있는 너른 바위를 뚫어 용출하는 천연수를 끌어들여 자가 상수도과 목욕물로 썼는데 삼엽과 삼피를 넣고 끓였기 때문에 인삼탕이라 했고 세안용 비누도 인삼을 넣고 만든 독특한 거였다. 다실에서는 백삼 분말차나 홍삼 엑기스차를 인삼 웨하스나 인삼정

과에 곁들여 마실 수가 있었으니 그야말로 호강의 극치여서 중앙의 고급관리도 인삼장에서 대접을 받고나면 오래도록 자랑거리로 삼곤 했다.

“그 어른이 내려오신답니다. 이번 기회에 교제를 해보라는데 이왕이면 인삼장에서 모셔야겠습죠?” 경우는 이렇게 넌지시 어머니의 의중을 먼저 떠보았다....(중략)...

“시방 내 심정이 고약한 건 사실이다만 설마 지성으로 애쓰는 자식땀에 그렇겠는? 인삼값이 왜 이렇게 천해졌나 그게 한심해서 그런다. 마암쓰지 말거라.”

“인삼값이 천하다니요.”(하권 384~385 쪽)

“내가 한심스러운 건 노이 아버지는 소싯적에 인삼 몇 뿌리를 왜놈들에게 도둑맞지 않으려구 목숨을 거셨드랬지. 그때만 해도 인삼은 금쪽이구 목숨이구, 영물이었드랬지. 그런 인삼이 무쪽이 돼버려도 분수가 있지 왜놈이나 왜놈 앞잡이들이 그 물로 제 놈들 발살에 낀 때까지 씹는 세상이 돼버렸으니 더 살면 무슨 꼴을 보게 될까 나이 먹는게 욕수럽구 겁나는구나.”

“인삼으루다 그 사람털 마음을 살 수만 있으면 그 또한 인삼의 신령한 효험아니겠시니까?”

“오냐 오냐, 네 말대로 돼야 힐텐데, 그래두 행여 잊지 말거라. 천해질수록 영험도 줄게 돼 있다는 걸.”(하권 385쪽)

인삼 수난과 민족 수난을 등치시키는 흐름은 「미망」의 마지막 장면에서 상징적으로 그려진다. 초반부에서 일본인의 인삼 도적질을 지키려다 수난을 받은 종상이와 6.25 전쟁 이후 남쪽에서 개성 인삼의 명맥을 이으려고 목숨 걸고 셋골로 들어온 아들과 조카의 인삼 종자 훔치기가 오버랩되며 각각의 다른 결말을 보여준다. 태남이 경우와 경국에게 인삼 종자를 내어주지 않으면서도 훔쳐 가도록 방치하는 미필적 고의와 헛 돌파매질로 쫓는 시늉만 하며 묵인하는 장면으로 소설 「미망」은 마무리된다.

“누님 그 애들은 떠났소, 이제 누님 생전에 그 애들을 다시 보시긴 틀렸소.”

“갔어?” 혼자 말을 한 셈이었는데 태임이가 알아듣고 눈을 번쩍 떴다. 오래간만에 반짝 생기가 돌아온 눈빛이었다.

“에 갔어요. 그 애들이 글썄 우리 묘삼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지 뭘니까?”

“저런 고얀 놈들이 있나? 그래 그놈들을 그냥 놔뒀나?”
너무도 또렷한 목소리였다. 태남이는 눈물이 글썽해서 말했다.

“제가 그냥 둘 성립니까. 팔매질을 했는데 빗나갔어요. 저도 이제 늙었나 봐요. 그래도 제놈들이 감쪽같이 훔친 건 아니란 거야 알았겠지요. 뭐.” 태남이는 더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렸다. 그리고 입가에 예쁜 미소가 떠올랐다. 미소는 입가에서 뺨으로, 뺨에서 눈가로, 눈가에서 이마로 차례로 주름을 지워가며 번졌다. 정말로 예쁜 미소였다. 태남이가 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건 일본놈 인삼 도적을 추적하는 소년 종상이의 씩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하권 476쪽)

젊은 시절 종상이가 인삼 도적질을 하는 일본인을 쫓아가는 장면을 회고하며 숨을 거두는 태임의 맑은 미소가 그려지는 「미망」의 종장은 이 소설의 압권이다. 「미망」의 전체를 관통하는 ‘일본으로부터 인삼을 지키려는’ 노력은 우리를 지키려는 민족정기를 의미한다. 「미망」의 큰 줄거리를 관통하는 주제인 외세에 굳굳히 맞서는 민족정신을 삼업에 투영한 것이다.

3. 근대 자본주의의 맹아 인삼상인

「미망」에서 인삼재배와 상업으로 부를 일군 태임, 종상 가족이 근대 자본주의 기업가로 변신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그들은 기업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만이 아니라 농경시대에 함께했던 식솔들에게 자립 기회를 주고 또 사업에서 나온 자금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등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착한 자본가로 발돋움한다.

조선 후기 개성상인들의 막대한 자본축적은 인삼경작과 제조, 판매, 해외교역을 통해서 가능했다. 농경사회에서 부호들은 지주자본에 머무는 경향이 강했다. 개성의 인삼 상인들은 그러한 경향과 달리 인삼에서 나온 부를 토지에만 투자하지 않고 근대적 기업 설립에 나선다.

개성 인삼 상인들은 20세기 초반 송고실업장, 개성전기 주식회사, 만몽산업주식회사, 영신사, 고려삼업사 등 근대적 기업을 설립하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³⁴⁾ 영농과 상업에서 축적한 자본을 생산 자본으로 전환해 근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구축하는 진취성을 보인 것이다.

「미망」은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인삼상인의 근대기업화 과정을 그린다. 종상은 양말공장, 고무공장을 설립하며 민족자본가로 성장한다. 전처만-전태임으로 이어지며 축적된 인삼 자본이 근대 자본주의적 생산자본으로 전환한 것이다. 개성 인삼 상인 김정호, 공성학 등 실존 인물들이 소설 속에 등장한다.

“종상이가 처음엔 소문으로만 듣고도 솔깃하게 여겼던 것은 다름 아닌 양말공장이었다. 해마나 늘어나는 학교 학생들 사이엔 요새 더럽이 덜 타고 활동에 편한 양복이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었다.(중략)...양말공장은 종상이가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더 잘됐다. 물건은 없어서 못 팔게 불티가 났고 이윤도 적절했다. 행랑채엔 ‘고려 양말공장’이라는 간판이 붙었다.”(하권 50~51쪽)

종상의 양말공장 설립은 식솔들이 양말 공장 기술을 배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원려(遠慮)였다. 종상은 태임에게 양말 공장 계획을 의논하며 태임이 부리는 종들을 풀어주자고 제안한다. 그들이 스스로 먹고 살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게 종상의 생각이다. 종상이 양말공장의 편수기를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며 가내 수공업을 독려하고 양말공장에서 얻은 수익으로 해외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인삼 상인들의 정신을 보여준다. 이는 실제 사례로 인삼상인의 전통이 ‘인간의 얼굴을 한 따뜻한 자본가’였음을 상징한다.

소설 속 양말공장의 모델인 송고실업장은 1907년 설립돼 개성을 섬유공업도시로 탈바꿈 시켰다. 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교육기관인 한영서원의 교내 실습장에서

³⁴⁾ 옥순종, 「개성상인의 근대기업화와 ESG 경영이념」, (인삼문화 3권, 2021), 92쪽

시작된 직조회사가 1920년대 중반 세계 경제침체와 경성방직, 조선방직 등 대형 방직공장이 등장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하자 김정호, 공성학 등 개성 인삼 상인 20여 명이 추축이 돼 회사를 인수했다. 인삼 상인들의 참여로 송고실업장은 더욱 번창해 한국의 염색가공사에서 염색 기술 및 시설에서 가장 빨리 현대화가 이루어진 업체로 평가받는다.³⁵⁾

“당시 한영학원은 일찍이 개화한 설립자가 뜻한 바 있어 학원과 실습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 나라가 근대화되려면 산업이 근대화돼야 한다는 설립자의 뜻에 따라 실습장에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최신의 면직기를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수입한 염료를 써서 생소한 색색가지 면직물은 빨아도 물이 빠지지 않는 신기한 피륙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하권 55쪽)

송고실업장에서 생산되는 ‘송고직’은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유럽으로 수출되었다. 송고실업장은 150명의 직원을 둘 정도로 당시로서는 대기업이었으며 임금근로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색채가 더욱 짙어졌다.

송고실업장의 등장으로 개성은 면직물 직조와 염색 기술이 발달한 섬유공업도시로 변화되었다. 송고실업장에서 면직물 직조와 염색분야 기술과 경험을 쌓은 전문 인력이 많아 개성 시내 일반가정에서도 소규모 가내 공업 형식으로 수직기를 들여놓고 생산했다.

종상이 태남을 양말공장 동업자로 참여시키려 할 때 태남은 ‘종상이 양말공장을 그만 둘’ 걱정을 하며 편잔을 한다. 이에 종상은 양말공장이 하인들 자립을 위한 의도였음을 밝히는 대목은 개성상인의 전통인 차인(差人)³⁶⁾의 독립을 지원하는 형식과 일치된다.

³⁵⁾ 김해숙, ‘해방이후의 충남 강경의 상인과 면직물 직조업’, (역사민속학 56호, 2019), 37쪽

³⁶⁾ 신용을 얻어 발탁된 사람으로 주인이 직접적 지도 아래 상업에 종사하거나 주인에게서 자본을 융통받아 독자적으로 상업에 나서는 사람.

“내 사업이라고 맘먹은 일 없네. 하인들 자립을 우선으로 시작한 일인데 이제 와서 그들을 몰라라 헐 날 줄 아나. 다행히 양말 기계가 재봉틀만 밖에 안 되니 제각기 집에 갖다 짤 수 있도록 빌려줄 작정이네. 우리 공장에선 면사를 염색해서 배달해주고 제품을 모아 검사하고 판매하는 일만 맡으면 훨씬 규모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중략)...당초 종상이가 양말공장을 일으킨 목적이 자기 집의 불필요한 하인 인력을 자립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으니 만치 그 후에 늘어난 직공들도 그 하인들의 연줄로 퍼진 국한된 사회였다. 그러던게 기계를 대여하고 부터는 여염집으로 퍼졌고 기계의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도 광범위해져 근교 농가에서 까지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겼다.”(하권 59~62쪽)

종상의 의도대로 많은 사람이 섬유 가내수공업에 참여해 개성이 섬유도시가 되었음이 실제로 확인된다. 개성 출신 섬유공학자 우지형은 “개성 시내에서는 골골마다 집집마다 수직기 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번성해 개성은 수직물의 명산지가 되었으며 수직물 생산도시로 변영했다”고 회고한다.³⁷⁾

종상은 양말공장에 이어 고무공장 설립으로까지 발전한다. 이는 당시 개성에서 상업자본이 생산자본으로 순환해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양상을 그대로 보여 준다.

소설에서 태임과 종상의 양말공장은 일본에서 수입되기 시작한 면직물이 시장을 점령하면서 위축되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태임과 종상은 고무공장을 세우지만 이도 역시 일제 말기의 산업합리화 정책이라는 명분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다. 비록 근대 기업화는 중도에 실패로 끝나지만 태임은 끝까지 인삼상인 정신을 잃지 않는다. 이는 일제의 국내 자본 말살정책에 대항하는 하나의 서사다.

개성 인삼 상인들이 설립한 근대적 기업이 서울, 대구, 부산과 다른 점은 민족자본이 주축이었다는 것이다. 개

³⁷⁾ 옥순중, 위의글, 103쪽 재인용

항 후 외국자본의 침투로 국내시장이 일본과 중국 상인들에게 잠식당할 때 조선 후기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경강상인들은 대부분 외국자본에 종속되어 기생화한 반면, 가장 마지막까지 외국 상업자본과 경쟁을 벌였던 상인은 개성 인삼 상인이었다.³⁸⁾ 인삼상인 김정호 등이 주축이 돼 설립한 개성전기주식회사는 전기회사 중 전국에서 유일한 민족자본이었다.

「미망」에서 태임의 죽음과 함께하는 전씨 가문의 쇠퇴는 토착적인, 상업자본이 공업화로 실패라는 사회경제사적인 의미로 규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삼상인 전씨 가문의 사람들은 재산을 잃었지만 그의 선대로부터 이어온 상인으로서의 정신과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³⁹⁾

일본인들의 인삼 도적질로부터 인삼을 지키려는 인삼상인의 저항과 일본 상인에 가장 굳건히 대응한 개성상인은 맥을 같이한다. 외세에 맞서는 민족정신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신은 개성 상인들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진다. 양말공장의 변창으로 근대자본가로 성장한 종상은 독립자금을 지원하고 태남은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투신하다 일경에 적발돼 옥고를 치른다.

“그가 십여 년 전 홀연히 양말공장 기술자 자리를 박차고 만주 땅으로 진동열 선생을 찾아 나선건 달래에 대한 연정도 있었지만 자신 속에 넘치는 정열과 힘을 투신할 일을 찾아서이기도 했다. 그가 투신하고 싶은 건 독립운동이었고 그중에서도 일어나 붓대를 놀리는 갑갑한 운동이 아니라 총칼을 들고 목숨을 거는 화끈한 운동이었다. 그러난 훗날 장인이 돼준 진동열 선생이 그에게 시킨 일은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었고 덕분에 많은 동지들이 희생되고 장인까지 학살당하는 전투와 토벌 속에서도 그는 안전하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하권 362쪽)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고 독립운동 자금 조달 역

할만 하는데 허탈해하는 태남에게 혜정(태남의 처, 달래 사망 후 재혼한 부인)은 그의 심각한 고민을 일축하며 독립운동자금 지원도 중요한 독립운동임을 일깨운다.

“총칼 들고 싸우는 것만이 독립운동인가요. 총칼은 어데서 거저 난데요. 또 안 먹고 안 입고 싸울 수 있나요. 돈 많이 벌어서 무기도 대주고 독립투사들 의식도 대주는 것도 훌륭한 독립운동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제쳐놓고 남 하는 일 부러워하는 것처럼 바보짓은 없어요.”

혜정의 그런 말이 당장 그의 열등감과 양양불락하는 마음을 고쳐준 것은 아니지만 예언처럼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잠적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과거의 연줄을 믿고 그에게 줄을 대 물질적 원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그들을 섭섭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니 가정사에도 점점 손속이 나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하권 363쪽)

개성상인들의 독립운동 지원은 작가 박완서가 실제로 들었던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박완서는 “개성엔 소문난 몇몇 부자집이 있는데 그들이 일제 때 소리소문 없이 해외에 독립자금을 댄 건 개성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일제 때야 소리소문없이 할 수밖에 없더라도 해방 후에는 그거로 애국자연할 수도 있으면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⁴⁰⁾고 회고한다.

「미망」에서 인삼 상인의 근대적 기업으로의 전환은 부분적으로 실패지만 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함은 따뜻한 자본주의를 꿈꾸었다는 점에서 성공으로 볼 수 있다.

박완서는 “「미망」에서 저는 좋은 의미의 자본주의에 대해 써보고 싶었습니다. 돈에도 인격이 있다는 것, 돈을 버는데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천격스럽게 쓰지 않는다는 태도 같은 것 말이죠. 우리 근대 자본주의의 선구

³⁸⁾ 고동환, 「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 (역사비평 54호, 2002), 219쪽

³⁹⁾ 권영민, 「박완서의 미망과 가족사적 소설구조」, 『권영민평론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5), 192~193쪽

⁴⁰⁾ 박완서, 『내 고향 개성 이야기』, 228쪽

자들이라 할 개성상인들의 나름의 풍속과 자부심 같은 걸 그리고 싶었습니다.”⁴¹⁾라고 그 의미를 설명한다. 「미망」이 상징하는 자본주의의 본모습이다. 작가는 개성인삼 상인을 그러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표상으로 대입시킨다.

4. 나가며

박완서의 「미망」은 인삼을 기반으로 거상이 된 전처만과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4대에 걸친 가족 연대기가 줄거리를 이룬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를 배경으로 조선말 봉건 체제의 몰락,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 근대화와 자본주의 질서 체제에 동반되는 다양한 장면들과 함께 소설은 역사적 격동기에 대응하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써온 박완서는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시대와 장소를 배경으로 「미망」을 집필했다. 작가는 잊지 못하는(未忘) 고향 개성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할 소명의식을 가졌던 것 같다. 박완서는 작가의 말에서 ‘개성을 이야기할 때 삼포와 장사 이야기를 빼놓고는 도저히 개성인의 전형을 만들 수가 없다’고 밝힌다. 이는 개성과 인삼 이야기를 소설의 뼈대로 삼아 줄거리를 풀어나갈 의도였음을 보여준다. 「미망」의 중심 주제가 개성인삼과 상인 정신을 통한 시대정신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작가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와 자신이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미망」을 완성한다. 「미망」은 허구이지만 실재하는 사실에 상상을 입힌 역사성을 띤 역사소설이다.

「미망」의 배경이 되는 셋골은 ‘개성에서도 삼포가 가장 널리 분포돼 있는 청교면에 있는 50여 호의 큰 마을’로 소설 곳곳에서 인삼 농사가 사실대로 재현된다. 태남의 아버지 재득의 도주로 인삼농사를 걱정하는 대목에

서 예정지 관리-묘삼 식재-본포 이식-채종-개갑-파종-수확의 순으로 순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다른 작업은 일꾼을 시켜도 종자 선별과 관리는 재득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대목은 종자의 중요성 즉 근본, 민족의 뿌리를 의미한다.

주인공 태임이 일꾼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종자 관리에 간여하는 것은 주제 의식의 연속선상이다. 태임은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인삼 씨의 채종기에는 솟제 셋골에 머물며 손수 종자를 채취해 배자루에 담아서 냇물에 불려 불필요한 과육을 깨끗이 제거하고 음지에서 말려 종자 체로 쳐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선별하는 일까지 정성스럽고 찬찬하게 손수 해내고 파종하기 전 지루한 개갑 기간 동안 종자를 마치 갓난아기 살피듯이 수시로 살피고 간섭한다.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이 분단된 후 경우와 경국이 남한에서 인삼 농사를 짓기 위해 38선으로 가로막힌 개성으로 목숨 걸고 인삼 종자를 구하러 들어가는 대목은 개성인삼의 뿌리가 이어짐을 의미한다.

태남이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루고 나와 셋골로 들어가 인삼 농사에 전념하는 것은 땅에 대한 믿음, 생명에 대한 믿음을 상징한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긴 기간의 인삼 농사의 막막함을 걱정하는 경우의 푸념에 아랑곳없이 묵묵히 인삼밭을 가꾸는 태남에게 인삼은 미래의 희망이다. 인삼 농사가 어렵고 막막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삼업인의 태도는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민족을 연상시킨다.

「미망」에서 인삼의 수난사는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상징한다. 일본인의 인삼 도적질과 이에 맞서는 인삼 상인의 대치가 중요한 대목마다 배치된다.

주인공 태임과 종상의 부부 인연은 일본인 인삼 도적을 막다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아 전처만의 집에서 치료를 받던 중 맺어지고 태임이 임종하면서 ‘인삼 도둑을 쫓는 소년 종상’을 떠올리는 서사는 「미망」에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인삼수탈=민족수난’의 상징화이다. 일본인과의 협잡에 반대하며 혈육과 의절하는 전처만의 태도는 그가 지키고자 하는 민족상인의 상도다.

⁴¹⁾ 최재봉, 『박완서 문학길찾기』, (세계사, 2000), 39쪽

전처만은 일본인과 야합으로 돈을 벌려는 셋째 아들 이성을 경멸하며 의절까지 한다. 전처만의 아들은 셋인데 전처만은 농사꾼 기질이 강한 둘째 부성에게 전포를 물려주고 장사꾼 기질이 강한 셋째 이성에게 셋골의 삼포를 물려준다. 이는 이성의 재주가 승하여 상도를 저버릴까 걱정되어 6년간의 기다림과 성실, 정직성을 필요로 하는 인삼 농사를 통해 아들이 개성상인의 도를 배우게 하려는 의도이다. 전처만이 지키고자 한 것은 혈통보다는 개성상인의 정신이었다.

「미망」은 인삼재배와 상업으로 부를 일군 태임, 종상 가족이 근대 자본주의 기업가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린다. 종상과 태임은 인삼재배와 장사에서 얻은 부를 농경사회의 관습대로 지주자본으로 재투자하기 보다는 양말공장, 고무공장 등 근대기업을 설립한다. 개성상인의 근대기업화 과정은 실재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다. 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교육기관인 한영서원의 교내 실습장에서 시작된 회사가 1920년대 중반 파산 위기에 처하자 김정호, 공성학 등 개성 인삼 상인 20여 명이 추축이 돼 회사를 인수했다. 송고실업장에서 면직물 직조와 염색분야 기술과 경험을 쌓은 전문 인력들은 소규모 가내공업 형식으로 수직기를 들여놓고 면직물을 생산해 개성은 섬유공업도시로 변화된 산업사가 소설 속에 그대로 재현되었다. 인삼상인은 기업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주변 사람들 즉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자립 기회를 준다. 태임과 종상은 인삼과 공장에서 나온 자금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등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착한 자본가로 발돋움한다. 박완서는 「미망」에 대해 “좋은 의미의 자본주의에 대해 써보고 싶었다”며 “근대 자본주의의 선구자들이라 할 개성상인들의 나름의 풍속과 자부심 같은 걸 그리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성 인삼상인들이 설립한 근대적 기업이 서울, 대구, 부산과 다른 점은 민족자본이 주축이었다는 점이다. 인삼상인 김정호 등이 주축이 돼 설립한 개성전기주식회사는 전기회사 중 전국에서 유일한 민족자본이었다. 대부분의 토착 자본들이 외국자본에 종속되었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외국 상업자본과 경쟁을 벌였던 상인은 개성 인삼상인이었다. 이는 민족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망」에서 나타나는 인삼의 상징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려 인삼의 정기를 보여준다. 인삼 농사의 정성과 까다로움, 인삼의 영물스러움을 드러내며 땅에 대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다.

둘째, 일본의 인삼 수탈을 민족수난사로 상징한다. 이를 지키려는 인삼 상인들의 노력과 독립운동 지원을 중요한 줄거리로 풀어내 인삼 지키기를 민족정신에 대유한다.

셋째, 인삼에서 얻어진 부를 토지, 상업 자본에 머물지 않고 생산 자본으로 전환, 근대 자본주의로 편입하고 식솔들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는 인삼 상인의 진취성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 준다.

박완서가 남기고자 했던 개성의 상인정신과 시대상황은 인삼을 기제로 해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인삼을 기제로 ‘땅과 생명에 대한 믿음=인삼의 영물스러움, 인삼 수탈=민족수탈, 개성상인 정신=따뜻한 자본주의’를 형상화함으로써 박완서는 영원한 고향 개성의 자부심을 잊지 않으려 했다.

Acknowledgement

이 연구는 2020년도 (사)고려인삼학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

참고문헌

1.저서

-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 (동지, 1997)
- 권영민, 『권영민 평론선집』, (지식을 만든 지식, 2015)
- 박완서, 「내 고향 개성이야기」,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1)

- 박완서, 『박완서의 말-소박한 개인주의자의 인터뷰』, (마음산책, 2018).
- 박혜경,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을 읽는다』, (열림원, 2003)
- 옥순중, 『은밀하고 위대한 인삼이야기』, (이가서, 2016)
- 최재봉,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 호원숙, 『우리 시대의 소설가 박완서를 찾아서』, (웅진 닷컴, 2002)

2. 논문

- 강용운, 「박완서 작품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기억과 주체의 형성」, 『인문학술 창간호』, (순천대 인문학술원, 2018)
- 고동환, 「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 (역사비평 54호, 2002)
- 권영빈,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탈) 근대공간의 건축술: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성의 탄생」, (여성문학연구 45, 2018)
- 김조형, 「인삼왕 손봉상의 업적을 통해본 개성인삼 개척사」, (인삼문화 2권, 2020)
- 김종희, 「근대의 선두에 선 작가의 고향」,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8호, 2006)
- 김윤정, 「박완서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2
- 김해숙, 「해방이후의 충남 강경의 상인과 면직물 직조업」, (역사민속학 56호, 2019)
- 김혜란, 「박완서의 미망연구-근대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4)
- 마이사 고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고향의 기억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20)
- 엄미옥, 「박완서 노년 소설에 나타난 노년의 의미」, 『횡단인문학 7호』, (숙명인문학연구소, 2021)
- 옥순중, 「개성상인의 근대기업화와 ESG 경영이념」, (인삼문화 3권, 2021)
- 임현미,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족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05)
- 이진주,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모녀관계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1)
- 정은비, 「박완서 단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2011)
- 최희숙, 「박완서 소설연구=자서전적 소설과 전쟁체험 소설 중심으로」, 아주대 석사학위 논문(2007)
- 허정인,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2009)
- 홍기돈, 「미망」 2010년대에 부각되는 민족문학으로서의 의미」, 『미망 3권』, (세계사, 2012)

Received: September 30, 2021

Revised: November 10, 2021

Accepted: November 12, 2021